

‘허리 보강’ 광주 FC, 1위 굳히기 나선다



광주FC가 오는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2019 K리그2 18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18경기 연속 무패와 5연승에 도전하는 광주는 스피드로 안산 측면 공략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안산과의 원정경기에서 김정환(왼쪽)이 드리블을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허칭요 영입…왕성한 활동량·킬 패스 장점
‘K리그2 18R’ 내일 홈에서 안산전…18경기 무패·5연승 도전

프로축구 광주FC가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를 영입하며 허리를 강화했다. 광주는 4일 “중원에 힘을 보탬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허칭요(22·Francisco Ferrieira Jurani)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175cm·65kg의 날렵한 체구를 지닌 허칭요는 왕성한 활동량과 날카로운 패스가 장점으로 꼽힌다.

또 폭발적인 스피드와 슈팅, 뛰어난 개인기술로 미드필더부터 세컨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자원이라는 평가다. 2018년 3부리그에서 데뷔한 허칭요는 세르지 파노주 1부리그 아이타바이나로 이적한 뒤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다. 당시 허칭요는 리그 베스트11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9년 브라질 전국리그인 세리에B 고이아스(고이아노주 1부)로 이적한 뒤에도 팀의 준우승

에 힘을 보태는 등 맹활약했다.

박진섭 감독은 “미드필더의 과부하가 예상되는 시점에 허칭요의 영입은 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활동량과 개인 기량이 좋은 만큼 중원에서 시작되는 밸런스를 더욱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허칭요는 “광주는 리그 1위에도 승격을 목표로 하는 팀이다. 그동안 소속팀 준우승을 함께했는데 광주에서는 꼭 우승 트로피를 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올 시즌 광주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속에 선두집주를 이어가고 있다.

펠리페의 ‘결정력’, 윌리안의 ‘기술’, 아슬마토프의 ‘재치’에 허칭요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승격에 도전하는 광주는 날개를 달았다.

또 광주는 펠리페와 2022년 여름까지 3년 계약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으로 승격 도전을 하

게 됐다.

새로운 자원을 영입한 광주는 홈팬들 앞에서 5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6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18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6월 4경기에서 전승을 달리며 창단 첫 4연승과 함께 17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또 무실점 쫓아오던 2위 부산아이파크가 주춤하는 동안 승점을 7점 차로 벌려냈다.

광주의 공격 중심에는 3경기 연속골로 물이 오른 펠리페가 있다.

펠리페는 앞선 대전 원정에서 14호골로 1-0승리를 이끌며 광주의 역대 외국인 선수 최다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앞선 기록은 2013년 루시오가 기록한 13골이다.

이번 경기에는 ‘수비의 핵’인 아슬마토프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지만 앞선 라운드에서 주장 김태운이 부상 복귀전을 치르면서 수비에 힘을 보탬다. 이한도, 김진환, 홍준호 등을 통한 로테이션 효과도 기대된다.

광주는 김정환과 엄원상의 스피드로 안산의



허칭요

약점인 측면을 뚫는다는 계획이다. 안산이 올 시즌 기록한 17실점 중 필드 실점은 9개에 이른다. 전력을 강화한 광주가 홈팬들과 5연승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2 즐겨요

전남드래곤즈 하프시즌권 판매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가 멤버십 하프시즌권을 판매한다.

2019 전남드래곤즈 멤버십 하프시즌권은 오는 14일 대전시티즌과의 홈경기부터 시즌 11월 9일 안산그리너스와의 마지막 홈경기(승강 플레이오프 포함)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기존 멤버십의 50%로 성인 골드석 15만원, 실버석 5만원이다.

청소년 골드석은 7만 5000원, 실버석은 2만 5000원이며 어린이 골드석과 실버석은 각각 4만원과 1만 5000원에 판매된다.

하프 시즌권 구매자는 기존 시즌권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10명의 구매자를 선정해 선수들의 친필사인인 담긴 사인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프시즌권은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sports/football/event/195>)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판매는 8월 14일까지 계속되며, 구단 사무실이나 홈경기 멤버십 부스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구단 홈페이지(<https://www.dragons.c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 17라운드 부천과의 홈경기에서 1-0승리를 거뒀던 전남은 오는 7일 오후 7시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아산 무궁화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동성고 산뜻한 출발

청룡기 개막전 전주고에 3-1 승

청룡기 2연패에 도전하는 광주 동성고가 산뜻하게 첫승을 신고했다.

동성고가 4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74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개막전에서 전주고에 3-1승리를 거뒀다.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한 동성고는 1라운드를 통과하면서 2연패를 향한 순항을 시작했다. 동성고는 지난해 ‘에이스’ 김기훈(KIA)을 앞세워 대회 정상에 올랐다.

동성고가 1회 선두타자 고승환의 좌측 2루타로 대회를 열었다.

이준범의 희생번트에 이어 최지강의 적시 2루타가 나오면서 동성고가 일찍 선취점을 만들었다. 김현양의 2루타가 이어지면서 2-0이 됐다.

하지만 동성고는 이후 몇 차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6회말 추격을 허용했다.

2루수의 실책으로 선두타자를 내보낸 뒤 2사 3루에서 나온 김명규의 내야안타로 실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선발 김민규가 상대 4번 타자 조원빈을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우면서 리드를 지켰다.

동성고는 8회 1사에서 나온 상대의 연속 실책과 폭투 등으로 1점을 보태면서 3-1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선발 김민규가 7이닝 4피안타 6탈삼진 1실점(비자책)의 호투, 승리의 주역이 됐다.

한편 동성고 경기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청룡기는 오는 16일까지 목동야구장과 신월야구장에서 계속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46개교가 참가해 우승에 도전하게 된다.

한편 앞선 황금사자기 4강 팀인 광주일고는 8일 오전 9시 30분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순천 효천고는 9일 오전 30분 그라운드에서 오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흥식 감독 “터너, 한번 더 기회 주기로”

덕아웃 **T** 톡톡

▲신인때 개막전 준비하는 느낌이니 = 프로 20년 차 이범호가 마지막 여정에 나섰다. 오는 13일은 퇴식을 앞둔 이범호는 4일 엔트리에 등록됐다. 그는 7일 LG전까지 홈팬들을 만나고, 9~11일에는 고향 대구에서 마지막 원정 시리즈를 치른다. 이어 광주로 돌아와 자신의 프로 데뷔팀인 한화를 상대로 은퇴 경기를 치른다. 이범호는 “한화전에 맞춰 은퇴식을 잡았는데 홈에서 인사하고, 고향 다녀왔다가 친정팀과 은퇴 경기를 하게 됐다. 완벽하게 가게 됐다”며 “마지막에 잘 보내주신다”고 웃었다. 이범호의 은퇴식은 ‘굿바이 이범호: 타이거즈의 꽃, 고마웠습니다’란 주제로 진행되며 KIA 선수들은 이날 이범호의 배번인 25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는다. 은퇴식 경기 입장권 예매는 6일 오전 11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진행되며, 입장권은 25% 할인(스

카이박스 제외·K3석 50% 할인)된 값으로 판매된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 터너가 대구에서 마지막 선발 테스트를 받는다. 터너는 지난 3일 NC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와 3.2이닝 4피안타 5볼넷 3탈삼진 4실점에 그치며 패를 기록했다. 이로써 터너의 올 시즌 성적은 평균자책점 5.38, 4승 9패가 됐다. KIA 타자들이 1회부터 2점을 뽐내졌지만 터너는 4회도 넘기지 못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박흥식 감독대행은 5일 취재진과 만나 전날 터너의 피칭에 아쉬움을 표한 뒤 “삼성전에는 괜찮았다고 한다. 다음 주 삼성 원정경기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그 뒤에 심사숙고 해서 (터너의 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 후배들의 승리에 기분 좋게 하루를 연 KIA ‘막내’ 김기훈이었다. 김기훈은 지난해 모교 동성고의 청룡기 우승을 이끈 주역이다. 마운드에서 3승을 수확하며 동성고의 결승행



이범호 은퇴식 엠블럼

을 이끌었던 김기훈은 포항제철고와의 결승전에는 타자로 맹활약했다. 투구수 제한으로 타자 역할에 집중했던 김기훈은 투런포를 쏘아 올리는 등 장타 실력을 뽐내며 대회 MVP가 됐다. 김기훈은 “오전에 후배들 경기를 봤다. (후배들이 이겨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며 “후배들이 자신감 있는 것 같다. 작년에 우승했으니까 올해도 잘해주면 좋겠다”고 선전을 기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마추어 야구선수에 금지약물 이라니”

프로야구선수협, 약사법 위반 혐의 전직 야구선수에 유감 표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장 이대호)가 아마추어 선수를 상대로 한 불법 약물 투여 사건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냈다.

선수협은 5일 “지난 3일 아마추어 야구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직 프로야구선수 A씨를 규탄하며, 프로야구 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어린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약물을 권유하고 직접 약물을 주사했다는 A씨의 행위에 분노한다”며 “A씨의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야구계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KBO리그에 A씨가 지도자 등으로 발붙일 수 없도록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A씨의 초상권이 야구게임에 사용되지 않도록 게임사에도 요청할 방침이다.

선수협은 A씨의 야구 교실에서 훈련한 KBO리

그 현역 선수 송승환(19·두산)과 고승민(19·롯데)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선수협은 “A씨가 과거 해당 선수들이 신인 지명전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인터뷰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두 선수는 지명회 의가 끝난 뒤 A씨의 야구교실에 가서 기술 훈련을 했다. A씨의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선수는 전날 소속 구단을 통해 이번 약물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이하 한은회·회장 이순철)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약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KBO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대해 마련을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